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27일 화요일 음 9월 11일 (3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구름 많겠다. 아침 기온은 12~14°C, 낮 최고 기온은 20~21°C로 어제와 비슷하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rain and cloud cover.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and sunset.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s for the next two days.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감기가능지수, 자외선지수. Rows show health and safety weather info.

월드뉴스

K-뮤직페스티벌, 영국에 한국음악 알린다

'온라인+라이브' 결합해 열려

영국 관객들에게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한 한국음악의 아름다움을 선보여온 K-뮤직페스티벌이 가을밤 다시 찾아온다.



페막공연 담당 서수진(왼쪽)과 키트다운스.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이정우)은 런던 재즈페스티벌 주관사인 시리아스와 손을 잡고 오는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K-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현지시간 26일 밝혔다.

경소, 박우재, 박순아 등 국악계 솔리스트 4인의 협연 '포박사실'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 온라인과 라이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페막공연은 재즈레이블 ECM 소속 니어 이스트 콰텟의 드러머 서수진과 영국 출신의 피아니스트 키트다운스의 협연으로 진행된다.

화제의 공연부문에서는 K-뮤직페스티벌에서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던 잠비나이, 블랙스트링, 이희문과 프렐류드의 공연을 다시 볼 수 있다.

이정우 주영한국문화원장은 "이번 K-뮤직페스티벌에서는 라이브와 온라인을 연계해 한국의 전통음악과 재즈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이 소개될 것"이라며 "다양한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국 관객은 전막실황공연을 통해 한국에서 열리는 가야금 신에 트리오 헤이스트링의 공연, 박지하와 박연뉴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한라칼럼



고찬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위원·문학박사

코로나 시대, 세상을 보고 여는 우리의 시야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는 여전히 멀어 보인다. 코로나 시대를 어 느꼈 적음하며 견디고 있는 있지만, 기약 없는 대면과 이동 제한에는 사람들의 피로와 불만이 한계에 달한 것 같다.

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일상에서 벗어나기 그 자체를 여행의 목적으로 삼는 이들 또한 꽤 많아졌다. 도착지 없는 비행으로도 아쉬움을 달래고 있지 않은가. 하긴, 여행이 소기의 성과를 이뤄야 할 과업도 아닐뿐더러 심적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유익하기에 이런 '비일상'으로의 여정도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일 지도 모른다.

문득 모두가 발이 묶인 이 시기에 80여년 평생 고향을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던 철학자 칸트가 떠오른다. 세상을 뒤바꾼 자동설에 빚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인식론 철학에 가져온 것으로 그는 유명하다. 대상을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주체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 대상이 달리 보이는 거라고 주장 했다. 지금은 당연한 말 같지만 이에 충격을 받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된 당시 18세기 사람들은 그게야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된 것이다. 자기 집에서 100마일 이상 벗어난 적 없이 좁은 행동반경 내에서 규칙적 일상만 반복하며 살았지만, 칸트는 보편적 인간성과 도덕률을 매개로 세계시민주의를 구상하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공동체까지도 꿈꾼 자이다. 세계화가 익숙한 현대 인도 가능하기 힘들 정도로 그는 이미 세상을 넓게 세상을 깊이 바라본 것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한정된 공간도 우주처럼 더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할 수 있음을 자신의 삶 자체로 입증한 '자유'로운 철학자 칸트를 이 시대에 소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삶이 힘들다고 '테스형'도 불렀으니...)

그런데도 이전에 모르던 우리 사회 온갖 소식들을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많이 접하게 됐다. 약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 코로나로 인해 뚜렷해진 부와 계층의 격차,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와 일용직 사고사를 포함한 불평 등 고용의 민낯, 더 빈번해진(혹은 수면으로 드러난) 아동학대 및 성착취, 종교·성·인종 차별 등 이 사회에서 숨겨졌던 병폐들을 마주보게 됐다. 윤색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비로소 이 사회의 아픔을 발견하고 조금은 이해하게 됐다.

더 많이 보고 알게 되는 게 새로운 풍경의 여행처럼 마냥 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밀려드는 책임감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일인 것도 알게 됐다.

그런데 세상 다시 그리고 달리 보게 된 세상이 내가 원래 있던 곳이고 그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칸트형'의 정언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열린마당

화재없는 녹색제주, 소각행위 금지부터



정정권 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장

소방관에게 10월은 화재와 전쟁을 준비하는 전초전의 시기이다. 요즘은 날씨가 건조해 풀이나 낙엽이 마른 상태가 지속돼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위험도가 매우 높다. 만약 바람까지 불면 화재는 급속도로 번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근 출동한 화재를 보면 발이나 작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나 잡목 등을 소각하다 발생한 경우가 빈번했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해보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절반이 넘었고 쓰레기 소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

욕심을 비우면 청렴이 보인다



고경성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

최근 다시금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미니멀리즘(Minimalism)'이다. 미니멀리즘이란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예술과 문화적인 흐름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미니멀리즘을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집에서 잡다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물건을 정리하면서 중고시장에 싸게 내놓거나 무료로 나누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비우고 정리하는 게 대체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버려지는 물건들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가지고 있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하지 않으나 소중한 물건들이 많을 것이다. 결국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공식사회에서 옳지 않은 달콤한 제안에 응하거나 청탁자를 위해 일련의 절차들을 무시하는 행위, 근무태만, 각종 비리, 유착, 부정 부패 등 비위행위로 꼬집는 사례들은 울바르지 못하고 과한 욕심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식사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TV에 방영 중인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의뢰인의 집을 찾아가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가구들을 재배치해 집의 분위기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비우고 정리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내 초심은 어땠는지 돌아켜보게 된다. 그동안 정리가 못한 욕심들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도 신박하게(?) 정리해보면, 공직에 입문할 때가졌던 깨끗하고 청렴한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청렴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Advertisement for Jeju Hallyeong (제주한라농원) featuring various agricultural products like grapes and apples.

Advertisement for Hanlim Jeongmyo (한림종묘) listing various types of rice seedlings for sale.

Advertisement for Gamgul Jeongmyo (감굴종묘) listing various types of rice seedlings for sale.

Advertisement for Gamgul Jeongmyo (감굴종묘) listing various types of rice seedlings for sale.